

2022. 교육청 + 평가원 기출문제

언어와 매체

이름: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뽕죽구두’, ‘눅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눅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① 먹고살다 | 새색시 |
| ② 뛰놀다 | 떡거리 |
| ③ 갈라서다 | 척척박사 |
| ④ 걸어오다 | 큰아버지 |
| ⑤ 빛나다 | 돌다리 |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 만에 만났다.
 ㉡ 바깥에 오래 있었다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 ① ㉠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② ㉡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 ③ ㉢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 합성어이겠군.
- ④ ㉣의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먹다’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⑤ ㉤의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영: 내일이 방송부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날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진수: 너무 걱정 마. 내가 대본에다가 발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표시해 봤어. 확인해 봐.

(방송 대본)

어제는 책을 열심히 ㉠ 읽는[잉는] 친구에게 선물할 책을 사려고 ㉡ 서울역[서울력] 안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 복잡한[복짜판] 인파를 헤치고 서점 ㉣ 깊숙이[김쭈기] 들어가서 친구에게 줄 시집을 드디어 찾아냈지요. 시집을 펼쳐 마음에 드는 시를 ㉤ 읊다가[읍따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수영: 그런데 왜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수: 맞아. 각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모두 살펴보면,
 _____ [A] _____
 수영: 그렇구나. 고마워.

- ① ㉠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돼.
- ② ㉡에서는 한 번의 첨가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돼.
- ③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복짜판]으로 발음돼.
- ④ ㉣에서는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김쭈기]로 발음돼.
- ⑤ ㉤에서는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읍따가]로 발음돼.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현도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이 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에 차이가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한 면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할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의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예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다시 게이트 키핑을 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요.

- ①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관련 기사를 '지구 온난화'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가)의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가 (나)에 없는 것은 입력된 검색어와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게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를 생산한 언론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복수의 언론사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④ (나)의 ㉠은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는 정부의 정책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의 ㉢, ㉣ 기사를 낸 각 언론사들은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할 때 서로 입장을 달리한 것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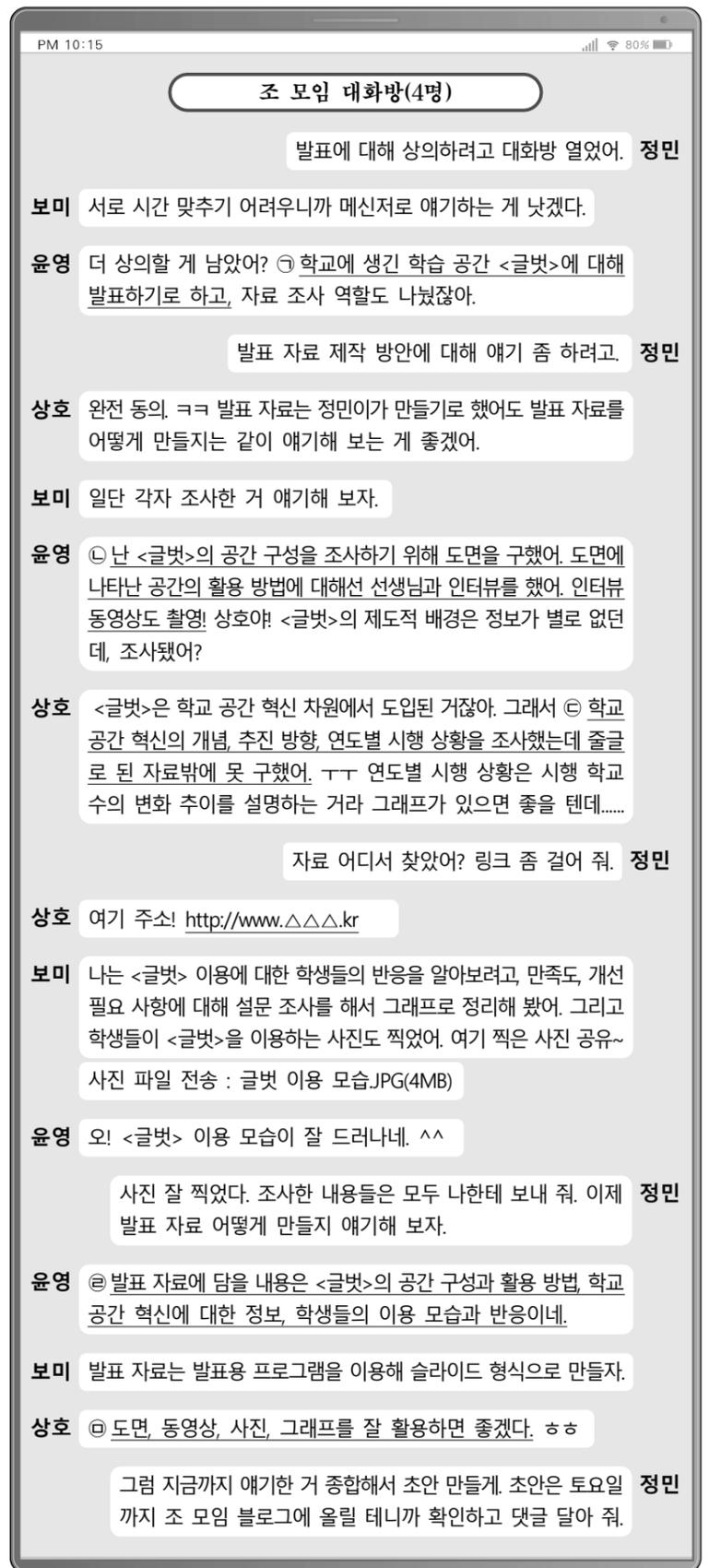
42.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 있다'를 써서 기사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표현하였다.
- ② ㉡: 피동 표현을 통해 '지적'한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지적'된 내용을 기사에 제시하였다.

- ③ ㉢: 직접 인용 표현을 써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기사에서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
- ④ ㉣: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인과 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내었다.
- ⑤ ㉣: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내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정민'이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제목: 발표 자료 초안 글쓴이: 정민

댓글로 의견 달면 참고해서 수정할게,
애들이 <글벗>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아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구성했어.

1.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

- 미래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창의적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 획일화된 학교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간을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

학교 공간 혁신의 추진 방향

- 체험형 놀이터, 창의적 학습 공간 등 공감형 공간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연도별 시행 상황(단위: 교)

연도	시행 교 수
2019년	170
2020년(예정)	270
2021년(예정)	360

자료 출처: 학교 공간 혁신 누리집(www.△△△.kr)

애들이 <글벗>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간을 중심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했어.

2. <글벗>의 공간 구성과 활용 방법

<글벗>의 공간 구성(도면)

50cm 긴 책상, 6인 책상, 4인 책상, 독서마루, 스타디움, 250cm, 20cm, 830cm, 840cm, 440cm, 350cm

공간별 활용 방법(인터뷰 동영상)

글벗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글벗> 이용 모습을 포함해서 구성했어.

3. <글벗> 이용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의 <글벗> 이용 모습(사진)

학생 만족도(단위: 명)

만족도	명수
만족	75
불만족	15
모르겠음	20

개선 필요 사항(단위: 명)

개선 필요 사항	명수
조명	20
스타디움	30
소음	25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 ② '정민'은 휴대 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점을 거론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윤영'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보미'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 ⑤ '정민'과 '상호'는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을 바탕으로 '정민'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언급된 학습 공간의 명칭을 제목에 일관되게 포함하여 각 슬라이드 상단에 배치해야겠군.
- ② ㉡에서 언급된 두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앞뒤 슬라이드에 연속적으로 배치해야겠군.
- ③ ㉢에서 언급된 자료 중 연도별 시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로 바꿔서 제시해야겠군.
- ④ ㉣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하여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겠군.
- ⑤ ㉤에서 언급된 자료를 문자 언어와 함께 배치하여 발표 내용을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해야겠군.

45. <보기>는 (나)에 달린 '댓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윤영: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
 ↳ 보미: 좋은 지적!
 ↳ 정민: 그래, 수정해야겠다.

상호: 세 번째 슬라이드에 사진 대신 동영상을 넣는 건?
 ↳ 윤영: 이용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좋네.
 ↳ 보미: 좋아요^^ 동영상 내가 추가로 찍어서 올릴게.
 ↳ 정민: 파일 올려 주는 대로 수정할게~~

상호: 개별 슬라이드 내에서 내용 제시 순서를 모르겠어.
 ↳ 정민: 그럼 설명 순서에 맞게 번호를 붙일게.
 ↳ 보미: 그러면 발표자와 듣는 애들 모두 편하겠다.

보미: 세 번째 슬라이드의 막대그래프 두 개는 원그래프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 상호: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선 필요 사항은 표에 구체적인 의견을 넣어서 제시하는 게 어때?
 ↳ 보미: 개선 필요 사항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낫겠다.
 ↳ 정민: 의견 종합해서 하나는 원그래프, 하나는 표로 수정할게.

3. <글벗> 관련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 ㉠

(1) 학생들의 <글벗> 이용 모습(동영상) ㉡

(2) 학생 만족도(단위: 명) ㉢

만족도	명수
만족	75
불만족	15
모르겠음	20

(3) 개선 필요 사항 ㉣

순위	내용	인원
1	스타디움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30명
2	학습 공간에서 휴대 전화 통화를 해서 시끄러워요.	25명
3	조명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20명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형용사 형성 파생법은 크게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대체로 ㉡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럼 아래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접두사] 새-, 시-

[접미사]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

[학습 활동] 다음에서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나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바로 코끝에서 **시퍼런** 바닷물이 철썩거리고 있었다. 늘 걷던 길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여기 머문 지도 어느새 삼 년이 되어 간다. 돌이켜 보면 **복된** 나날이었다. 이웃들과 매일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어디서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①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새롭게’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복된’은 접미사 ‘-되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④ ‘정답게’는 접미사 ‘-답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사랑스러운’은 접미사 ‘-스럽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3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우리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

㉡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 안도했다.

㉢ 우유를 마신 아이가 마루에서 잠들었다.

- ①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과 달리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37. <보기>는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太子 | 앓겨 므스매 너교되 비들 만히 니르면 몸 삶가 하야 니오되 **금으로** 짜해 석로물 **뽕** 업게 하면 이 東山을 프코리라 須達이 니오되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太子 | 니오되 내 룡담하더라 須達이 니오되 太子人 法은 **거죽마를** 아니하시는 거시니 구쳐 프르시리이다

[현대어 풀이]

태자가 아껴 마음에 여기되 ‘값을 많이 이르면 못 살까.’ 하여 이르되 “금으로 땅에 깔음을 틈 없게 하면 이 동산을 팔겠다.” 수달이 이르되 “이르신 양으로 하겠습니다.” 태자가 이르되 “내가 농담하였다.” 수달이 이르되 “태자의 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하는 수 없이 파실 것입니다.”

- ① ‘금으로’와 ‘양으로’를 통해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뽕’을 통해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니르산’을 통해 주체인 수달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太子人’을 통해 ‘人’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거죽마를’을 통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준 발음법 제5장에서는 ‘음의 동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화는 음운 변동 중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 ‘ㄱ, ㄷ, ㄴ’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ㄹ’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 ‘ㄴ’이 ‘ㄱ’의 앞 또는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음인 ‘ㄱ’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예컨대 ‘만물[만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실내[실래]’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한편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은 동화음, 동화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은 피동화음이라고 하는데, 동화는 동화의 방향이나 동화의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는 동화, ㉠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과 같은 일부 특성만 닮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실내’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나지만, ‘만물’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방법만 닮는 동화가 일어난다.

[A]

(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 표기 일람

(1)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ㅝ	ㅟ	ㅡ
a	o	u	i	ae	yeo	yo	wa			

•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 자음

ㄱ	ㄷ	ㅂ	ㅅ	ㅁ	ㅇ	ㄹ
g	d	b	s	m	ng	r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2. 표기상의 유의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38. (가)와 (나)를 참고해 <보기>의 ㉠~㉣를 로마자로 표기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대관령[대:꺠령]에서 ㉡ 백마[뵁마] 교차로까지는 멀다.
- ㉢ 별내[별래] 주민들은 ㉣ 삼목묘[삼몽묘]를 구입하였다.
- 작년에 농장 주인은 ㉤ 물란리[물랄리]로 피해를 보았다.

* ㉠~㉣는 지명임.

- ① ㉠: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대:꺠령]으로 발음되므로 'Dae:kwallyeong'로 표기해야 한다.
- ② ㉡: 초성 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나 [뵁마]로 발음되므로 'Baengma'로 표기해야 한다.
- ③ ㉢: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별래]로 발음되므로 'Byeollae'로 표기해야 한다.
- ④ ㉣: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삼몽묘]로 발음되므로 'sammongmyo'로 표기해야 한다.
- ⑤ ㉤: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에서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되므로 'mullalri'로 표기해야 한다.

39. [A]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일어나는 동화의 양상을 분석할 때, ㉠과 ㉡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만을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

곤란[꺠란]	국민[꺠민]	읍내[읍내]
입문[입문]	칼날[꺠날]	

- ① 곤란, 입문
- ② 국민, 읍내
- ③ 곤란, 국민, 읍내
- ④ 곤란, 입문, 칼날
- ⑤ 국민, 입문, 칼날

[40~42] (가)는 인터넷 블로그이고, (나)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경 파수꾼 '구르미'의 블로그

읽을거리 **생각 나누기** 자료 더하기 일상 기록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가 싫어요

구르미
2021.02.06.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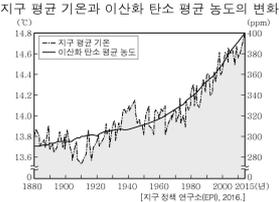
여러분은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위? 얼음? 북극?
오늘은 다큐멘터리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을 보고 든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옆의 사진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옆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곰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이산화 탄소 농도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 등이 있어요.





이 영상은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 홍보 영상인데, 다큐멘터를 찾아서 시청하시면 북극곰의 아픔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자료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지구_온난화 #북극곰_멸종_위기 #이산화_탄소_배출_줄이기

댓글 7 **공감 16**

사랑이 북극곰에게 미안하네요.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①

↳ **구르미** 그럼요. 저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초록곰 저도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www.ooo.go.kr 여기서 이산화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②

↳ **구르미** 방문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 분들과 공유할게요.

밤불이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 **구르미** 감사해요. 수정할게요.

몽돌이 그래프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진 속 작은 얼음 조각마저 사라져 북극곰은 살 곳이 없어지고 말겠어요. ㅠ.ㅠ

(나)



진행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두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 기자: 취재한 자료 영상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저수지 바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이렇게나 심각하군요. 그에 따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 한 분을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 간에 면 대 면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를 매체 자료라고 한다.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이러한 복합 양식적인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그 의미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놓여 있는 맥락 속에서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료의 수용은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 수용자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창의적 생산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그래프와 동영상 등을, (나)에서 문자와 음성 등을 활용한 것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몽돌이'가 쓴 댓글은 수용자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구르미'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든 생각을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은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창의적 생산자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진행자와 윤 기자가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의식을 수용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매체 자료를 생산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진행자가 윤 기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은 생산자들 간에 놓여 있는 맥락이 같아도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매체 언어의 특성에 주목하여, 블로그를 통해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제시된 정보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 ③ ㉠: 매체의 사용 습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 ④ ㉡: 블로그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를 나타내고 매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⑤ ㉡: 블로그에 제시된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야기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회장 후보자 지원단 대화방 (5명)

경호 애들아, 대화방 열었어. 서로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 내용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참고하며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

한신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거지?

경호 응, 맞아. 의견 줄래?

소희 누리 소통망에 올릴 홍보 동영상은 우리의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을 잘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전에 만든 포스터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워.

연주 좋은 생각이야.

한신 누가 이야기판 만들래? 나한테 이야기판 양식이 있어. 공유할게.

파일 전송: 이야기판 양식.hwp(15.0KB)

지섭 내가 이야기판을 만들어 볼게.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견을 줘.

소희 ㉠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이 잘 드러나도록 소통에 관한 장면과 화합에 관한 장면을 하나씩 구성하자.

연주 ㉡ 소통 장면에서는 경청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고, 화합 장면에서는 여럿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

한신 ㉢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를 각각 다른 장면으로 제시하자.

지섭 ㉣ 공약 사항을 자막으로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효과음을 넣자.

경호 좋아. ㉤ 내레이션으로 자막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자.

전송

(나)

	장면	장면 설명
S#1		(우측 상단에 슬로건 제시) 학생들과 함께, 후보자가 힘찬 발걸음으로 등교한다. [자막] 기호 ×번 김□□
S#2		후보자가 귀 옆에 양손을 가져다 댄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학급별 소통함 제작 [내레이션]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S#3		세 학생이 어깨동무를 한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한마음 축제 개최 [내레이션]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고를 만들겠습니다.
S#4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제시한다.

S#5



투표하는 손을 보여 준다.

[자막] 당신의 한 표를 기호 ×번에 행사하세요.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신'은 동영상에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하며 동영상의 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② '소희'는 매체 언어의 표현 전략을 비교하여 매체 언어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연주'는 문자와 그림말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의미를 제시하여 동영상 제작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경호'는 휴대 전화 메시저의 특성을 언급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지섭'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4.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나)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판 검토 결과>

S#1	후보자의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는 배경 음악이 필요함.
S#2 ~ S#4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막에 제시되어야 함.
S#4	인터뷰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 함.
S#5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며 마무리해야 함.

- ① S#1에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제시한다.
- ② S#1의 자막을 '기호 ×번 김□□와 함께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로 수정한다.
- ③ S#2 ~ S#4에 S#1처럼 화면 우측 상단에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④ S#4에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들을 자막으로 제시한다.
- ⑤ S#5에 학생회장 후보자가 자막을 힘주어 읽는 내레이션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 한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를 가리킨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말 어미는 용언의 맨 뒤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이다. 가령, “나는 물건을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들었다’는 어간 ‘들-’에 선어말 어미 ‘-었-’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된 용언이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관계를 기호화하여 어간을 X, 선어말 어미를 Y, 어말 어미를 Z라고 할 때, 어간에 하나의 어미만 결합된 용언은 ㉠ X+Z로 표현될 수 있고, 어간에 둘 이상의 어미가 결합된 용언은 ㉡ X+Y+Z 혹은 ㉢ X+Y₁+Y₂+Z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말 어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며,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 대등적 연결 어미,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 종속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 보조적 연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이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문장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한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선생님: 다음 주에 있을 전국 학생 토론 대회 준비는 마쳤니?
 라운: 아직이요. 내일까지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해람: 사실 이번 주제는 저희들끼리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방금 교무실로 들어가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 보렴.
 라운: 창가 쪽에서 계신 분 말씀이죠?
 해람: 아, 수업 종이 울렸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자.

- ① ‘끝내겠습니다’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② ‘준비하기’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③ ‘들어가신’은 ㉢에 속하며, 이때 Y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④ ‘계신’은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⑤ ‘울렸네’는 ㉢에 속하며, 이때 Y₂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36. <보기>의 ㉦ ~ ㉨를 윗글의 ㉠ ~ ㉢로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기 >

-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 (㉦)
- 김이 습기를 먹어 녹록해졌다. (㉧)
-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
- 우리는 상대방에게 한 꼴을 먹고 당황했다. (㉩)
-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겉을 먹어 버렸다. (㉪)

- | | | | |
|---|------|------|------|
| | a | b | c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37.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 ㉤ 중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말 음성을 한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쓴 일지의 일부이다.



○ 프로그램의 원리

사용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면, 프로그램은 그 발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해 본래의 표기된 자료로 출력한다.

○ 확인된 문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발음을 본래의 자료로 출력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잘못 출력된 사례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대조해 ㉡ 교체, ㉢ 탈락, ㉣ 첨가, ㉤ 축약 중 ㉠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표기된 자료	표준 발음	출력된 자료
끊어지다	[끄너지다]	끄너지다
없애다	[업:쌔다]	업쌔다
피붙이	[피부치]	피부치
웃어른	[우더른]	우더른
암탉	[암탁]	암탁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8. <보기>는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탐구 개요
학생들은 형태가 동일한 두 형태소가 하나는 어근, 하나는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예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사례

- 마당 **한**가운데 꽃이 폈다. (㉠)
- 그가 이 책의 지은**이**이다. (㉡)
- 커다란 **알**밤을 주웠다. (㉢)

◦ 학생들의 반응

사례	어근	접사
㉠	15	10
㉡	5	20
㉢	5	20

(단위: 명)

◦ 결과 분석 및 추가 예시 자료 제시

[가]

-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A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번'을 제시한다.
-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B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복판'을 제시한다.
-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C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먹이'를 제시한다.
-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D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미담이'를 제시한다.
- '사례 3'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E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알사탕'을 제시한다.

39.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불휘 기픈 남근 **보**락매 아니 뵈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ㄹ**래 아니 그썩썩 **내**히 이러 **바**래래 가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 -

- '불휘'와 '식미'를 보니,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보'락매'와 'ㄹ'래'를 보니, '애'가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하'느니'를 보니, '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므'른'과 '바'래래'를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내'히'를 보니,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40 ~ 42] (가)와 (나)는 인쇄된 잡지에 실린 광고이고, (다)는 인터넷에 올려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가장 가벼운 총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한 해 800만 톤. 사람들에게겐 편리한 작은 빨대 하나지만 바다 생물들에겐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 이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서 바다 생물과 함께 지구 환경도 살릴 때입니다.



(나)

'미세 제로 공기 청정기'로 미세먼지 탈출하세요!

CADR(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 95m³/h
 CADR(Clean Air Delivery Rate)은 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공기 청정 기능에 있어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단 만족도 (별 5개 만점)
 평점: ★★★★★ 다른 제품보다 저렴하네요. ㉢ ㉣
 - 닉네임 '하늘 나무' 님
 평점: ★★★★★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요. ㉡
 - 닉네임 '좋은 열매' 님



(다)

생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

▶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
 ▶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헬스'를 이번 달 22일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숙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헬스의 복용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이 효과는 감태 추출물 때문이다. 또 ○○헬스에는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어 ○○헬스 한 알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 개선과 더불어 피로 회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그래서 ○○헬스는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 홍보 담당자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의 모든 소비자들이 ○○헬스를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기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 나아가 ○○헬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므로, 곧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를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보 김△△ 기자(kim@○○news.co.kr)

전체 댓글 2개 최근 순

↓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09:05

↓ 제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08:01

40.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글자 크기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수용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나)와 달리 (다)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④ (다)와 달리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므로 내용과 관련된 수용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다)와 달리 (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1. <보기>를 읽은 학생이 (가) ~ (다)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광고는 대중을 설득하는 활동으로서, 목적에 따라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한 상업 광고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익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는 상품 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표제와 부제, 핵심 내용을 요약한 전문 등을 갖춰 일반적인 기사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는 언론사 명칭과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고자 하는데, 이를 접한 대중들은 제시된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 ① (가)는 환경 문제의 대처와 관련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공익 광고에 속하겠군.
- ② (나)는 특정 제품의 기능을 제시하여 제품의 판매가 촉진되도록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업 광고에 속하겠군.
- ③ (나)에서 특정 제품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와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특정 언론사 명칭과 기사 작성자 이름이 제시된 부분을 보면 광고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려 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다)는 특정 제품의 출시 정보와 효능에 관한 내용을 표제와 부제, 전문의 형식을 갖춰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사문 형태의 광고에 해당하겠군.

42.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를 사용하여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수사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대상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의존 명사를 사용하여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대명사를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고 있다.

[43 ~ 45] (가)는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 만든 온라인 카페이고, (나)는 발표 자료의 수정을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수 의자 발표 모듬

최신 글 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발표 자료 제작을 위한 역할 분담	지혜	4월 2일
2	기사문(장수 의자 소개, 설치 현황 통계)	혜영	4월 3일
3	장수 의자 이용 방법 동영상	지오	4월 4일
4	장수 의자 사진, 어르신 인터뷰 동영상	윤일	4월 7일
5	장수 의자 홍보 그림, 개선 요구 사항 통계	호상	4월 8일
6	수정 회의 안내	지혜	4월 9일

공지 사항

6. 수정 회의 안내 작성자: 지혜

각자 자료 조사 열심히 해 줘서 고마워.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

슬라이드 1 - 발표 제목

- ▶ 장수 의자
- ▶ 홍보 문구

제목과 관련된 홍보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 줘!

슬라이드 2 - 제작 배경 및 제작 목적

- ▶ 어느 경찰관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됨.
- ▶ 어르신 배려 및 무단 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함.

슬라이드 3 - 설치된 위치 및 이용 방법

- ▶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됨.
- ▶ 접혀 있는 의자를 내린 후 앉음.

슬라이드 4 -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 ▶ 지역별 설치 현황
- ▶ 어르신 반응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

왼쪽 '발표 자료'에 있는 슬라이드 1~4를 살펴보고 오늘 밤에 모듬 대화방에서 수정 회의를 진행하자!

(나)

발표 모듬 대화방(5명)

수정 회의 시작합니다! 지혜

지오: 우선 각 슬라이드의 제목에서 중심 화제를 이어 주는 말이 있는 경우 이를 중심 화제의 글자 크기보다 작게 하여 중심 화제를 부각할 필요가 있겠어. 더불어 중심 화제들의 제시 순서에 맞게 번호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둘 다 반영할게. 지혜

참, 혜영이는 기사들을 좀 더 찾아봐 줄 수 있을까? 제작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면 다양한 내용이 필요해서. [A]

혜영: 그러고 보니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제작 목적에 대한 설명이구나! 알았어, 더 찾아볼게.

호상: 장수 의자가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거 맞지?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여.

윤일: 사진 파일 전송: 장수 의자 위치.JPG(8.1MB)

이게 원본인데 확인해 볼래? [B]

이게 더 잘 보인다.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게 확실하네. 고마워! 지혜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은 슬라이드에 활용하기는 했는데, 여기에도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담겨 있어서 지오가 올린 동영상과 내용이 겹쳐. 함께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호상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는 어르신들께서 의자를 직접 내리고 앉으시는 모습까지 담겨 있으니 이용 방법을 제시할 때는 이걸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혜 그 부분을 강조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호상 그런데 내가 동영상 편집 방법을 잘 모르는데.....

지혜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

지혜 정말? 그럼 내가 너 대신 발표를 할게. 슬라이드를 제작한 사람이 내용의 흐름에 더 익숙할 테니까.

호상 고마워. 잘 부탁해!

혜영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어르신 반응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할 때 활용하면 좋겠어. 동영상은 또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

윤일 그게 좋겠다.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장수 의자에 적혀 있어서 인짱다고 하신 할머니 말씀은 글과 사진으로 정리할게. 내가 찍어 올린 사진 중에 할머니의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 있으니, 이걸 함께 제시하면 할머니의 개선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혜 좋은 생각이야. 반영할게.

호상 참, 그런데 호상이 올린 두 자료의 출처가 모두 없더라. 통계 자료 출처는 내가 검색해서 찾아야. 그런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 혹시 그림을 찾은 인터넷 주소 좀 알려 줄래?

지혜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

지오 그런데 개선 요구 사항이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워드 그래픽으로 바꿔 제시하는 게 시각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아.

지혜 응, 그렇게 해 볼게.

43. (나)를 바탕으로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2'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기사 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보다 제작 배경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 ② [B]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4'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사진은 (나)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C]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3'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동영상에는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D]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1'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5'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나)에서 제시된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4. (나)를 고려하여 <보기 1>을 <보기 2>로 수정했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설치 현황

개선 요구 사항

순위	내용	인원
1	장수 의자 수량 확대	52명
2	장수 의자와 도로의 안전 거리 확보	32명
3	장수 의자 좌석 폭 확장	27명

자료 출처: <http://www.□□news.com> 자료 출처: <http://www.△△.go.kr>

〈보기 2〉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① 설치 현황 ② 개선 요구 사항

장수 의자 덕분에 편해졌어요. 그런데 설치된 곳이 별로 없어요. 더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해요.

장수 의자와 도로의 안전 거리 확보 장수 의자 수량 확대

장수 의자 좌석 폭 확장 장수 의자 수량 확대

자료 출처: <http://www.□□news.com> 자료 출처: <http://www.△△.go.kr>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오: 홍보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호상: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

혜영: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도 좋지.

지혜: 호상님과 혜영님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이제부터 홍보 문구를 만들어 보자.

㉠

- ① 호상: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 장수 의자에 대한 관심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② 윤일: 장수 의자에 앉아 신호등을 기다려 보세요.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
- ③ 혜영: 장수 의자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웃어 보아요. 우리 지역의 공동체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 ④ 지혜: 안전을 위해 장수 의자에서 잠시 대기하세요. 장수 의자에 머물면서 당신의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 ⑤ 지오: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

선 배: ㉠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후배 1: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선 배: 수고했어. ㉡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 안에 대해 뭐라고 해?

후배 2: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 배: ㉢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후배 1: 그런데 학교에서는 ㉣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 배: ㉥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후배 2: 네. 그럼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 ① ㉠과 ㉡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 ② ㉢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 ③ ㉣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 ④ ㉤은 ㉡의 ‘학교’와 ㉤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 ⑤ ㉦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신체 관련 어휘는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코¹

-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코²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 ① ㉠: 뭍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 ② ㉠: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
- ③ ㉡: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 ④ ㉡: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 ⑤ ㉢: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40~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민신문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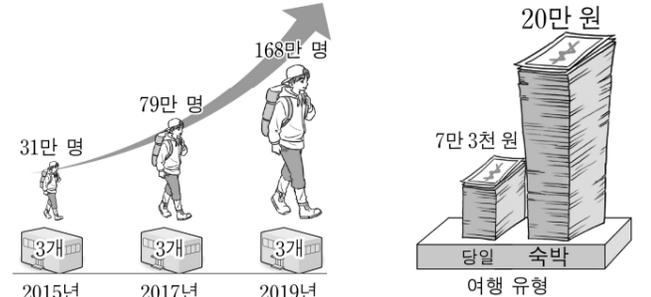
사진: ○○초등학교 시설 전경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희 시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식당·카페·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A]



연도	관광객 수 (명)	숙박 시설 수 (개)
2015년	31만 명	3개
2017년	79만 명	3개
2019년	168만 명	3개

여행 유형	지출액 (만원)
당일	7만 3천 원
숙박	20만 원

※자료: △△군 문화관광체육과(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희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①]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40.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겠군.
- ②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 ③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군.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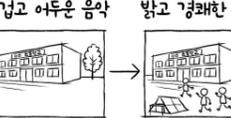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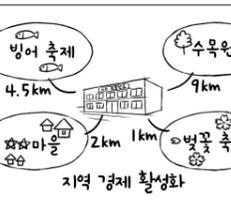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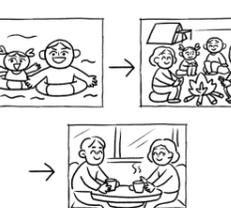
<보 기>

기사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행 과제: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 바탕 자료: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
- 영상 내용: 새로 조성될 숙박 시설 소개
 - 첫째 장면(#1):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
 - 둘째 장면(#2):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
 - 셋째 장면(#3):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
 - 넷째 장면(#4):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한 화면에 제시
 - 다섯째 장면(#5): 기사의 댓글을 참고해서 시설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연속적으로 제시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장면 구상
① 	#1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영상의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
② 	#2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배경으로 텅 빈 폐교의 모습을 제시한 후,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으로 전환.
③ 	#3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
④ 	#4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구성.
⑤ 	#5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물놀이장, 캠핑장, 카페 등을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제시.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서 다음 그림이 나타나도록 구성.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박 기자: ㉡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종류만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장면 3]

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살까 하다가, 이왕이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맘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장면 4]

박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 1순위였습니다. 이어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면 5]

박 기자: ㉡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KC 마크는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착됩니다. 간혹 광고로는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면 6]

박 기자: 휴대용 선풍기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 ㉢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의 주체	• (가)는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정보의 성격	•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보의 양과 질	•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4.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 ② ㉡: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③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45.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잡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

자료

마음속 걱정도 날리는, 내 손 안의 태풍

◇◇ 휴대용 선풍기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

부상의 위험을 줄인 부드러운 날

안전을 보증하는 KC 인증

- ①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②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단어 분류가 가지는 공통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구분된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같이’의 경우, ‘같이 가다’에서는 부사로, ‘소같이 일만 하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 있다.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에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를 살펴보자.

(ㄱ) 어느 뉘 講訢니(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ㄴ) 迷惑 어느 플리(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 것인가?)
 (ㄷ) 이 두 말을 어늘 從訢시려뇨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중세 국어에서 ‘어느’는 (ㄱ)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ㄴ)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ㄷ)에서 ‘어늘’은 ‘어느’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여기에서 ‘어느’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가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사, 부사, 대명사로 두루 쓰인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ㄴ. 합격 소식을 듣고 그가 활짝 웃었다.
 ㄷ. 학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① ㄱ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군.
- ② ㄱ의 ‘두’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군.
- ③ ㄴ의 ‘웃었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군.
- ④ ㄷ의 ‘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군.
- ⑤ ㄷ의 ‘는’은 체언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가)에서 ‘이’는 두 개의 품사로, ‘새’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 (나)를 통해 ‘이’와 ‘새’의 현대 국어에서의 품사를 알아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해 봅시다.

[자료]

(가) 현대 국어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이 사과는 맛있다.
 ◦ 새 학기가 되다.

(나) 중세 국어
 ◦ 내 이를 爲訢야(내가 이를 위하여)
 내 이 도늘 가져가(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 새 구스리 나며(새 구슬이 나며)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새 出家訢 사르미니(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군.
- ② 현대 국어에서 ‘이’의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 ‘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군.
- ③ 중세 국어에서 ‘새’는 대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였군.
- ④ 중세 국어에서 ‘새’는 현대 국어의 ‘새’와 동일한 품사로도 쓰였군.
- ⑤ 중세 국어에서 ‘새’는 다양한 품사로 두루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 ‘새’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지 않군.

3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날 때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양상에 따라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① ‘물약[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옴는[음는]’에서는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값하다[가과다]’에서는 탈락과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요금[그괩뇨금]’에서는 탈락과 축약과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넓죽하다[넙쭈카다]’에서는 탈락과 교체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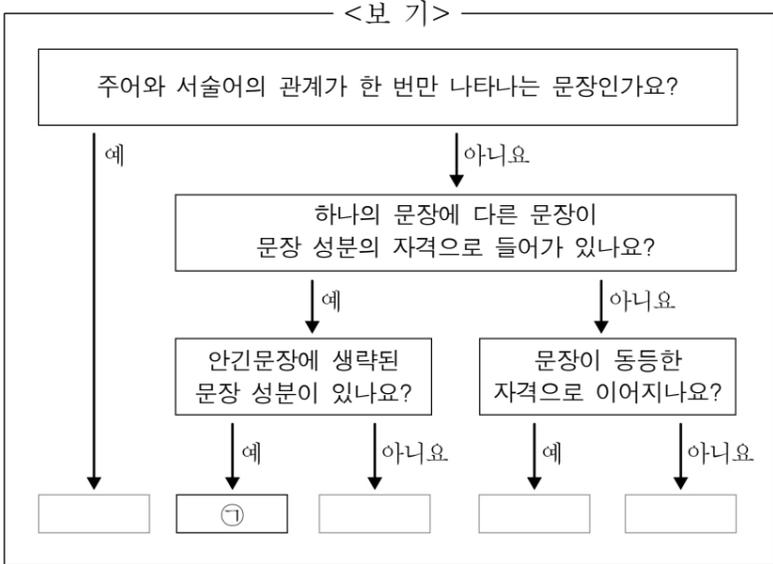
3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건이다.’에서 ‘갖은’은 ‘가진’을 잘못 쓴 예이다. ‘갖다’는 본말 ‘가지다’의 준말로, ‘갖다’와 ‘가지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런데 ‘갖다’는 ‘갖고’, ‘갖지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갖아’, ‘갖으며’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디디다/내딛다, 서투르다/서툴다,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건드리다/건들다’ 등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본말의 활용형만 쓴다.

- 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딛었다.
- ② 아저씨가 농사일에 서투른 줄 몰랐다.
- ③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쉴 생각이다.
- ④ 서두르지 않으면 출발 시간에 늦겠다.
- ⑤ 조금만 건드려도 방울 소리가 잘 난다.

3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
-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
- ④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40~42] (가)는 학생들이 ‘고전 소설 UCC’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진희’가 작성한 이야기판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전 소설 UCC 제작 대화방

애들아, 만나기 어려우니까 영상 구성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해 보자. 진희

민수: 좋아.^^ 우리가 선택한 <운영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만큼 두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해야 할 것 같아.

서영: 그래. 공녀 운영과 선비 김 진사의 만남,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보자.

지호: 만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 운영이 자기 손에 뒀던 먹물 방울에 수줍어하는 모습에 나도 같이 설레더라.

진희: 나도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안평대군은 주인공들을 만나게도 했지만 가로막기도 했잖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때?

민수: 그래. 안평대군도 포함해서 소개하고 인물 소개 장면에서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넣어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희: 그럴 것 같아. 그럼 영상을 소설 제목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로 구성하는 걸로 하자.

민수: 우선 소설 제목을 소개할 때는 마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화면에 넣자.

서영: 좋아. 그리고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다들 내가 보낸 음악 한번 들어 봐.

서영: [음악 파일 전송: 해금 연주.mp3]

지호: 들어 보니까 정말 좋다. 줄거리 소개 부분에도 다른 배경 음악을 넣어 볼까?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레이션도 넣고.

진희: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줄거리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호: 있잖아. 줄거리는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볼래?

지호: [문서 파일 전송: 운영전 줄거리.txt]

진희: 정리 잘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골라 볼게. 아, 그리고 영상에 우리 이름도 넣어놔야지?

민수: 물론이지.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

진희: 알았어. 그럼 내가 이야기판 초안을 만들어 볼게. 나중에 조언 부탁해.

(나)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운영전

서영, 진희, 민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김 진사

안평대군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사랑 노랫말의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호'는 매체상에서 공유된 음악 자료를 자신이 수집한 음악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지호'는 자신이 정리한 문서 파일을 대화 참여자들 중 특정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진희'는 매체상에서 전송된 문서 파일 자료를 바로 확인한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진희'는 매체 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화방을 만들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영'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슬픈 해금 연주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군.
 - ②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 제목과 주인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이름을 화면 아래쪽에 넣었군.
 - ③ 이야기판 2를 보니 등장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자막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했군.
 - ④ 이야기판 3을 보니 주요 장면을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고 차례대로 제시하며 줄거리를 소개했군.
 - ⑤ 이야기판 2와 3을 보니 영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을 활용했군.

42. <보기>는 학생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이야기판이다. ㉠~㉢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 **운영 전**

- 역을 한 방울로 이어진 만남 -



서영, 진희
면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안평대군은 두 주인공 사이에 위치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안평대군	김 진사
		
㉢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 **배경 음악:** 가사 없는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 ① ㉠: 주인공들의 인연이 부각되도록 인상적인 장면을 담은 부제를 넣자.
- ② ㉡: 주인공을 가로막는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
- ③ ㉢: 등장인물의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자막 위치를 옮기자.
- ④ ㉠: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으로 배경 음악을 바꾸자.
- ⑤ ㉢: 줄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의 개수를 늘리자.

[43~45]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라디오에서 방송한 대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2021년 7월 ○○일(○)

[연재] 지도와 세상 이야기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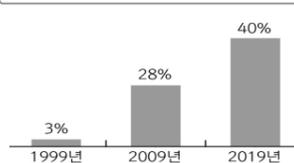
우리 바다 '동해' 바로 알고, 지명 표기 방법 고민해야

입력 2021.7.○○. 오전 7:06 최종 수정 2021.7.○○. 오후 3:02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기록을 살펴보면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단순히 '동쪽 바다'만 의미하지 않았고, 해가 뜨는 바다로서 신성함과 기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왕건이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동해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왕건이 말한 동해는 고구려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동해가 국호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현재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간직한 동해에 대한 정서는 없고, 단순히 동쪽에 자리한 바다만을 가리킬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지명인 동해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를 'DONG HAE'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색창]



연도	비율 (%)
1999년	3%
2009년	28%
2019년	40%

㉠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

동해의 이름 되찾기 연구를 지속해 온 김△△(◇◇박물관)은 동해의 지명 표기를 'DONG HAE/EAST SEA'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ONG HAE/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한 동해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동해를 'EAST SEA'라고 주장했던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해가 아닌 우리 바다 '동해'를 세계 지도상에 올바르게 표기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 기자(news@ooo.com)

㉡ **[관련된 뉴스]**

- ▶ 동해 표기의 역사, 우리 정부와 시민 단체의 노력
- ▶ 국제수로기구, 동해나 일본해 대신 고유 번호 표기 논의

댓글 6개

○○○**** 2021.7.00. 9:03
저희 학생 동아리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com] 링크로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 주세요.

[답글 3] 👍 6 🗨️ 2

△△△**** 2021.7.00. 16:57
이런 기사 좋아요! 다음 기사도 기대할게요.

[답글 1] 👍 1 🗨️ 0

(나)

진행자: (12시 정각을 알리는 음향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2시 현재, ‘생방송 뉴스를 듣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도와 세상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는 최 □□ 기자를 모시고 ㉔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어제 신문에 두 번째 연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해의 지명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단순히 방위의 개념을 표현한 지명으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동해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청취자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셨네요. “세계 지도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표기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 네. ㉕ 1919년 국제수로국을 창설하기로 결의한 후, 1923년 국제수로국 회의에서 일본이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착된 것이지요.

진행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뉴스 속보가 들어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누리집의 다시 듣기 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전달 매체	인터넷	라디오
매체 자료 생산자	기자	진행자와 기자
매체 자료 수용자	신문 독자	대담 청취자

- ① (가)의 댓글을 보니 매체 자료 수용자인 독자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될 수도 있군.
- ② (가)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와 동시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한번 생산한 매체 자료의 내용은 다시 수정할 수 없겠군.
- ③ (나)는 다른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매체 자료 수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군.
- ④ (나)는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듣기 서비스로 이를 보완하고 있군.
- ⑤ (가)는 문자, 도표, 영상으로, (나)는 음성, 음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마지막 문장을 명령형으로 종결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가):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고려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 표제를 피동으로 표현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나): ‘기자’는 현재 시제만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 ‘진행자’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㉑~㉕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체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매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매체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며,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

- ① ㉑: 검색을 통해 통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판단해야겠어.
- ② ㉒: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며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한지 점검해 봐야겠어.
- ③ ㉓: 관련된 뉴스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 내용과 비교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
- ④ ㉔: 매체 특성상 이야기의 세부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해야겠어.
- ⑤ ㉕: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므로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 공정한지 평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어서,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추카]’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다. 또한 중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중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A] 중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중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다. 예를 들어 ‘논일[논닐]’에서 ‘ㄴ’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음운 변동이다.

3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따라 ‘싫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예이다.
 - ② ㉡에 해당하는 예로 ‘복소리’와 ‘국물’을 들 수 있다.
 - ③ ㉢에 따라 끝말잇기를 할 때, ‘나뭇잎’ 뒤에 ‘잎새’를 연결할 수 있다.
 - ④ ㉣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뭇’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 ⑤ ㉤에 해당하는 예로 ‘복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들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기	발음
㉠	굳이	[구지]
㉡	옷만	[온만]
㉢	물약	[물략]
㉣	값도	[잡또]
㉤	활는	[할른]

- ①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②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③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④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 ⑤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 들이요. ㉠~㉤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세요.

㉠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 울보, 낚시꾼, 멧쟁이, 장난꾸러기
 ㉣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 부채질, 땀나물, 휘감다, 빼앗기다

학생: 예, 접사가 ㉣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① ㉠에서는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 ② ㉡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 ③ ㉢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 ④ ㉣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 ⑤ ㉤에서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2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이 홀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의 안긴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자.

조건	예문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안긴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겹문장	㉠
⋮	⋮

- ①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 ②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 ③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 ④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 ⑤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

- ㉠ 주격 조사 ‘이’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 ㉡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관형격 조사 ‘스’는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호격 조사 ‘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① ㉠: 드리 즘든 ㄹ래 비취요미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이]
- ② ㉡: 바블 머꿍 대로 헤여 머꿍과 [밥을 먹을 만큼 헤아려 먹음과]
- ③ ㉢: 그 나뭇 불휘를 빼헤 [그 나무의 뿌리를 빼어]
- ④ ㉣: 물궤 물로 모술 땡노라 [맑은 물로 못을 만드노라]
- ⑤ ㉤: 넙금하 아르쇼셔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40~43]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주소는 어디인가?

청소년 사회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발표된 ○○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88.3%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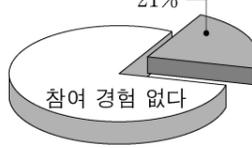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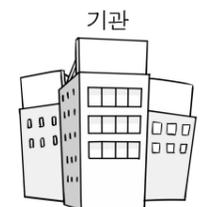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을까? ○○ 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3학년 김 모 학생은 ㉣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은 사회성을 향상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박▽▽ 기자 -

(나)

카드 1	카드 2
<p>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 합니다.</p>  <p>청소년의 약 88%는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참여 경험 있다 21%</p>  <p>참여 경험 없다</p> <p>그러나 실제로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21%에 그쳤습니다. 왜일까요?</p>
카드 3	카드 4
<p>기관</p>  <p>청소년</p> <p>청소년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p>	<p>기관 중심의 활동</p>  <p>청소년 주도적 활동</p> <p>이에 △△대 사회학과 김◇◇교수는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40. (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론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② (나)는 제시된 정보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③ (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편파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가)와 (나)는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가)와 (나)는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드1'에는 (가)의 보고서에 담긴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해야겠군.
- ② '카드2'에는 (가)의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야겠군.
- ③ '카드3'에는 (가)의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을 드러내기 위해 기관의 이미지를 더 크게 그려야겠군.
- ④ '카드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제시해야겠군.
- ⑤ '카드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교수 인터뷰 내용 중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구로 제시해야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 내용의 목적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43.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카드 뉴스 보완 방향: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에 카드 A, B를 추가

카드 A		카드 B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나요?		청소년 사회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응답 내용	비율(%)	
사회 참여가 어렵게 느껴져서	63	
:	:	우리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의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보여 준다.
-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이유를 제시한다.
- ③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 준다.
-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를 알려 준다.
- ⑤ (나)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44~45] (가)는 웹툰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진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의 회의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이 실린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 08. 01.....

하진 '마음을 그려 드려요'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올릴 웹툰에 대한 제작진 회의를 시작할게!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 우리 웹툰에 관심이 높아졌어! 이번 사연 내용이야.

웹툰을 챙겨 보는 독자입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라 사연을 올려요. 친구가 시험공부를 도와 달라 했는데,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 짜증을 냈거든요. 서운해하는 걸 보고 후회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사이는 더 멀어졌어요. 어떻게 말할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잘 그려 주세요.

우주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건 어떻게 드러내지?

주혁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하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

우주 좋아.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

하진 그러자. 대화는 말풍선에 쓰고,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

주혁 응. 그래도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줘.

하진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줘.

우주 그래. 회의한 걸 토대로 그려 볼게! 아,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 주소 링크도 올릴게.

-----20□□. 08. 12.-----

하진 댓글 봤어? 친구 입장에서 말해 보라는 의견도 있어.

우주 별점이 높은 것을 보니 독자들의 평가가 좋네.

주혁 그러게. 난 '좋은날' 님 댓글 보니 뿌듯했어. 수고했어.

+ 전송

(나)

동아리 소식 **마음을 그려 드려요** 사연 게시판

[열두 번째 사연] 20□□. 08. 08. 13:00 ^

시험공부 좀 도와줄래?
내가 ...

바쁘니까
알아서 해!

‘아, 후회돼.’

‘미안해서
어쩌지.’

“여러분이라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떤 말로 전하겠어요? 댓글로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
http://www.○○○.com/board_03

공감 ♥ 125 ★★★★★ 4.5

냥냥이: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라고 친구 입장에서 말하기. 20□□. 08. 08. 15:32 👍 87

파도: "정말 후회되고 미안하더라."라고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추천! 난 그렇게 해서 화해했어요. 20□□. 08. 09. 17:20 👍 55

↳ **숨사탕**: 맞아요. 먼저 말 걸기가 어려워도 솔직하게 중요해요. 20□□. 08. 09. 17:53

↳ **파도**: 그것도 맞는 말! 20□□. 08. 10. 19:12

좋은날: 작가님! 독자들의 고민 사연을 그려서 공유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왠지 제 얘기 같기도 하고. 20□□. 08. 11. 18:05 👍 33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웹툰 제작자가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보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나)는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45.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기 위해 장면이 제시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숫자를 세로로 배열해 날짜 변화를 표현했다.
- ②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여 인물의 행동 변화를 나란히 보여 주었다.
- ③ 멀어지는 친구 사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 ④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 ⑤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않다’, ‘못하다’, ‘말다’, ‘아니다’, ‘없다’ 등의 부정 의미의 용언과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단어는 여러 품사에서 나타나는데, 단어에 따라 호응하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 문맥적으로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그곳에 차마 가지 못했다(*나는 그곳에 차마 갔다)’와 같이 ‘차마’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가지 못했다’와 어울린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차마 가겠니?’와 같은 의문문이 ‘나는 그곳에 차마 갈 수 없다(가지 못한다/가지 않는다)’를 뜻함으로써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맥일 때에는 ‘차마’가 쓰일 수 있다.

한편,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부정문에 ‘이만저만’을 함께 써서 ‘문제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가 되면 ‘문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이만저만’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어렵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 것이다.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은 그 의미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문맥에서도 쓰이던 단어가 현대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용언의 어간에 ‘-지 아니하다’를 결합한 형태로 쓰이던 것이 시대에 따라 ‘-잖다’나 ‘-찮다’로 축약된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축약되기 전 형태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A] ※ ‘*’는 비문임을 나타냄.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그 일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있다.
 ㄴ. 화단의 꽃들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ㄷ. 나는 밤새도록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
 ㄹ.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
 ㅁ.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짱달싹했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ㄱ의 ‘아무런’은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사용될 수 없군.
- ② ㄴ의 ‘여간’은 ‘탐스럽지 않다’라는 부정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 ③ ㄷ의 ‘밖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고 있군.
- ④ ㄹ의 ‘좀처럼’은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군.
- ⑤ ㅁ의 ‘움짱달싹했다’를 ‘움짱달싹하지 못했다’로 바꾸면 어법에 맞겠군.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했을 때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 료]		
㉠	국어사 자료	○ 이거슨 <u>귀치 아니컨</u> 만은 보내는이다 [이것은 귀하지 아니하지마는 보내나이다]
	현대 국어	○ 그날은 몸이 아파 만사가 다 <u>귀찮</u> 았다.
㉡	국어사 자료	○ 봉늑 밧외도 <u>별로</u> 먹을 거슬 주시며 [봉늑 바에도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며] ○ <u>별로</u> 인스홀 테도 업스니 [특별히 인사할 모양도 없으니]
	현대 국어	○ 요즘은 공기가 <u>별로</u> 좋지 않다. ○ 나에게 그는 <u>별로</u> 매력이 없다.
㉢	국어사 자료	○ 무슨 말이든지 다 못드르면 <u>시원치 아니하</u> 여 [무슨 말이든지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현대 국어	○ 대답이 <u>시원</u> 찮다.

< 보 기 >

㉠ ㉠에서, 현대 국어 ‘귀찮다’는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별로’와 달리, 국어사 자료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3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문장에서 부사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됩니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 중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를 찾아볼까요?

- 오늘의 행복은 ㉠ 내일의 성공만큼 중요하다.
- 이곳의 토양은 ㉡ 토마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 너는 ㉢ 너에게 주어진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 형은 ㉣ 머리가 덜 마른 상태로 국어 교과서를 읽었다.
- ㉤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8.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탐구 주제: '훔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훔따]로 발음될까?
[자료]

(1) 종성의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2)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면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한다.

(3) 종성의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4) 같다[갈다], 날겠다[날겐따], 거칠더라도[거칠더라도]

탐구 과정:

가설 1: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 후에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 '[자료] (4)'에서 확인되듯이, 어간이 (㉠)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가설 2: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 후에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다.
→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나 어간 종성의 'ㄷ'이 (㉡), '[자료] (3)'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이후 '[자료] (2)'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탐구 결과: '가설 1'을 기각하고 '가설 2'를 받아들인다.

- | | |
|---------|-------------|
| ㉠ | ㉡ |
| ① 'ㄷ'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② 'ㄷ'으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③ 'ㄹ'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④ 'ㄹ'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⑤ 'ㅅ'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39.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높임 표현은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국어에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도 존재한다. 겸양의 표현은 일부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저희가 어머니께 드렸던 선물이 여기 있네요.
- ②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걸어가신다.
- ③ 제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 ④ 이 문제는 아버지께 여쭙어보자.
- ⑤ 지나야,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

[40~42] (가)는 동아리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채원'이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대화방(4명)

학교에서 준 가정통신문 봤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는 거 말아야. 채원

준형: 그거 잃어버렸어. 혹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줄 수 있어?

현진: 이거 말하는 거지?

사진 파일 전송: OO고 가정통신문(3MB)

응.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줄 몰랐어. 채원

수예: 그래. 나도 그거 보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ㅠㅠ

준형: 이전에 내가 보낸 영상 봤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야. 못 본 사람은 꼭 봐. 여기 주소 올려 봐. <http://www.ddd.kr>

수예: 나는 이미 봤는데 애니메이션이라 재미있더라.

현진: 나도 지금 보내 준 주소로 들어가서 봤어. 짧지만 강렬하군!

준형: 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떠올랐어.

그래서 말인데, 이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해 학교 누리소통망에 올리자! 채원

수예: 좋아. ㉠ 카드 뉴스는 사진, 이미지 등을 비중있게 사용하여 정보의 전달력을 높인 뉴스니까, 그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겠네.

현진: 핵심 내용을 간단한 문구로 제시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적절히 배치해야지.

㉡ 카드 뉴스를 볼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채원

준형: 그리고 ㉢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볼 거니까,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좋아. 내가 카드 뉴스 초안 만들어서 동아리 블로그에 올릴게. 보고 댓글로 의견 줘. 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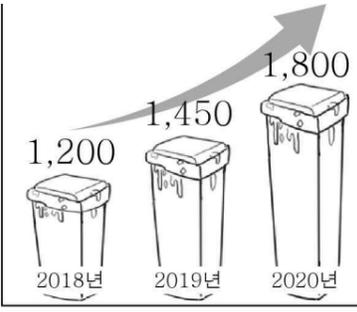
(나)

1/6

우리 학교 급식의 실태는?

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2/6

<p>우리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p>  <p>2018년 1,200 2019년 1,450 2020년 1,800</p> <p>○○고 급식 잔반 처리 비용(만 원)</p>	<p>우리 학교 급식 잔반을 30%만 줄여도?</p>  <p>“잔반을 30%만 줄여도 연 5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요.”</p> <p>○○고 영양사</p>
<p>3/6 급식 잔반을 줄이는 방안은?</p>  <p>딱 먹을 만큼만 받기!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p> <p>5/6</p>	<p>4/6</p> <p>잔반을 줄이면</p> <p>○○고 급식의 질이 올라갑니다.</p>  <p>6/6</p>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수예’는 매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전달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채원’은 카드 뉴스의 제작을 제안하며 매체가 가지는 정보 전달의 과급력을 밝히고 있다.
- ⑤ ‘채원’과 ‘수예’는 그림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41. ‘채원’이 ㉠~㉥을 고려하여 세운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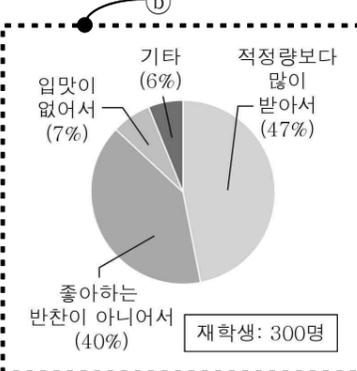
- ① ㉠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의 종류를 사진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을 고려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여야겠어.
- ③ ㉢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결합한 글자를 사용해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 ④ ㉣을 고려하여, 우리 학교의 급식 잔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⑤ ㉤을 고려하여, 잔반을 줄였을 때의 혜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어.

42. 다음은 (나)에 달린 ‘덧글’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진: 두 번째 카드의 제목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준형: 맞아. 제목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래프에 조사 대상의 인원과 각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밝혀 주자.
 ↳ 현진: 그래프에서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따로 정리해 주자.
 수예: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네 번째 카드의 삽화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 현진: 그게 좋겠다. 그리고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2/6

왜 급식을 남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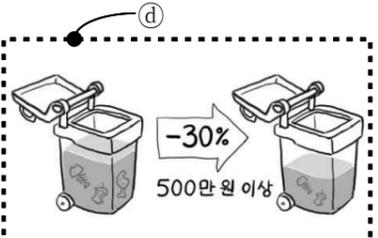
입맛이 없어서 (7%)
기타 (6%)
적정량보다 많이 받아서 (47%)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어서 (40%)

재학생: 300명

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적정량보다 많이 받아서’가 47%로 가장 높았고,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어서’가 40%로 그다음이었다.

4/6

우리 학교
급식 잔반을 30%만 줄여도?



“잔반을 30%만 줄여도 연 5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약 천 명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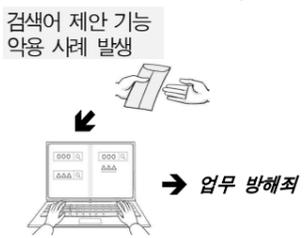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많으시죠?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유 □□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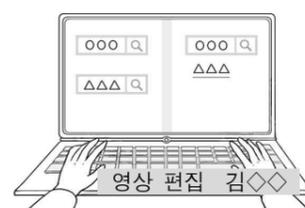
[장면 2]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전체 이용자의 검색 횟수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면 3] IT 전문가: 이렇게 검색창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특정 업체명을 검색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천 회 반복하면 특정 단어를 검색할 때 특정 업체가 검색어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장면 4]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면 5]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포털 사이트 관계자: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차단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해당 결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면 6]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

6면 2021년 ×월 ×일 화요일 사회 제 1210호 ☆☆신문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 열려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검색어 제안 기능’ 병행성 모색 토론회

 최근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㉔㉔ 기관의 주관으로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언론 정보 전문가는 검색어 제안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색어 제안 기능의 운영은 그 주체인 포털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시민 단체 대표는 최근 부정확한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됨으로써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㉔ 또한 선량한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㉔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은 “자율성과 공익적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고려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기자 oooo@000.co.kr

43. (가)에 사용된 정보 제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에서는 뉴스 수용자가 보도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에 자막으로 보도 내용의 요점을 제시한다.
- ②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는 뉴스 수용자가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 한쪽에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한다.

- ③ [장면 3]에서는 뉴스 수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검색어 제안 기능의 악용 사례를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보여 준다.
- ④ [장면 4]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제시하는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 ⑤ [장면 6]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다룬 다양한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들을 요약한 화면을 보여 주며 마무리한다.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㉒: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③ ㉓: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보도 내용과 관련한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④ ㉔: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 내용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 ⑤ ㉔: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시민의 견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뉴스 생산자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뉴스 수용자가 문제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 ①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보도를 시작하며 수용자의 경험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입장을 모두 보도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 모두에서 뉴스 생산자가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시의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언어와 매체 2022학년도 기출문제 정답

1) 2022. 예비
15245 32342 1

2) 2022.3
22331 35443 5

3) 2022.4
54121 33234 5

4) 2022.6
54255 34321 5

5) 2022.7
23411 54225 5

6) 2022.9
42451 23355 2

7) 2022.10
22431 31555 4